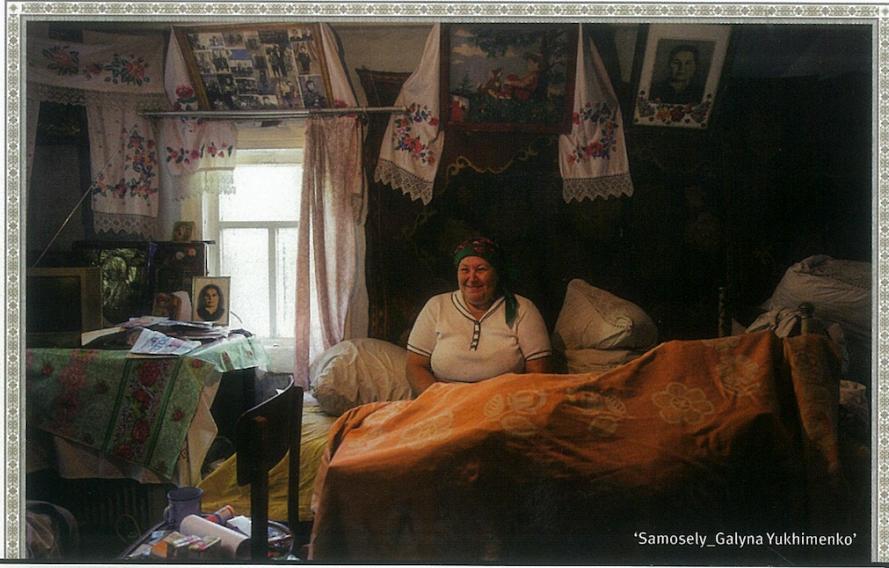


# Art

담당 김수진 기자



##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그 후의 기록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안전 시스템 시험 중이던 원자로가 폭발했다. 대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원자로 주변 30km 이내에 사는 주민 9만2000명은 강제 이주했다. 20세기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사고는 체르노빌 프리퍄트Pripyat를 황폐한 땅으로 바꿔놓았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기까지는 90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대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버려두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사고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프리퍄트에는 '생명'이 살고 있다. 야생동물과 식물 그리고 차마 고향을 버리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린 체르노빌 원주민 '사모셀리Samosely'가 삶을 이어가고 있다.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보다 강한 고향을 향한 애착을 품고 스스로 외부와 단절된 채 멈춰버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진작가 정성태가 카메라에 담았다. 방사능 출입 금지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 폐허 위에 뿌리 내린 삶과 풍경을 포착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나무 모던 앤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에서 열린 정성태 개인 전 <체르노빌-쇠잔한 아름다움>에서 체르노빌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문화원과 공동 기획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올해 4~5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진행한 전시 <Breath in Chernobyl>에 이은 한국 전시다.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소개하지 않은 작품을 포함해 미학적으로 뛰어나고 복합적인 메시지를 담은 사진 30여 점을 염선해 선보였다. 끔찍했던 원전 사고 이후 폐허가 된 땅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적Trace', '사모셀리Samosely', '선물Present'이라는 3가지 큰 주제로 소개했다. 페인트칠이 벗겨진 푸른 벽과 아무렇게나 열린 창문, 둉그러니 놓인 의자 위로 두텁게 쌓인 먼지는 방사능의 위험을 경고하고, 원전 사고 전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지키며 소박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사모셀리의 초연한 모습은 생명의 강인함을 되새기게 한다. 정성태 작가는 "사모셀리는 인간이 저지른 큰 재난 속에서도 다시 자라나는 체르노빌의 수풀처럼, 자신의 터전에서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이라며 "체르노빌의 을씨년스러운 풍경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을 가득 채운 방사능 수치는 우리에게 결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듯했다"고 말한다.

